

보도시점 2024. 4.4.(목) 17:30 배포 2024. 4.4.(목) 17:00

## 밸류업이 우리 기업·국민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됨을 강조

- 최상목 부총리, 해외 투자자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방향 논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4.4.(목) 14:00, 싱가포르·홍콩·미주지역 해외 투자자들을 초청(영상회의)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기관 : (싱가포르) Wellington, GIC, Fullerton, M&G, Pictet, HSBC  
(홍콩) Orbis (미주) Artisan, Indus

최 부총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sup>1</sup>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 촉진, <sup>2</sup>코리아밸류업 지수 개발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 지원, <sup>3</sup>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리 기업과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수익성 제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실제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가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들을 장기간 꾸준히 실천하고, 기업들도 투자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간담회를 마치며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홍승균 (hsgyun@korea.kr)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사무관 신정원 (jungwonshin@korea.kr)